

영암 대불국가산단 산뜻해진다

군, 40억 들여 기반시설·환경 개선 도로·인도 재포장 아름다운 거리 안심귀갓길 조성·자전거길 정비

영암군이 '아름다운 산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영암군은 근로자 주거 편의향상 등을 위해 대불 국가산단단지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도로 및 인도 재포장, 차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량 정기점검 및 보수공사 등의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아름다운 거리' 및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특히 노후 산단의 이미지를 탈피해 밝고 활기찬 산단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예정인 '대불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22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산책로 정비에 나선다. 거리 조성사업은 대불산단을 '왕인박사의 거리'(0.45km), '솔라시도 거리'(0.44km),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테마거리(0.48km)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총 1.37km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왕인박사에 얽힌 이야기를 산책로와 쉼터, 스마트 가로등 등에 적용하고 다문화 테마 공간을 조성한다. '음악 산책로'와 야간 조형물 등을 도입해 활



영암군 관계자들이 대불국가산단단지 내 도로와 인도에 대한 재포장 등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로 탈바꿈한다.

지난달 (주)케이씨 인근 1.4km의 노후도로에 대한 정비를 시작으로 대야로 등 6개 도로를 재포장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달부터는 18억원을 투입해 인도 정비공사도 시행한다.

대불산단은 1997년 조성된 이래 군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근로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대불산단 내 자전거도로 7.45km를 개설하는 한편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보수가 필요한 도로

(인도)를 전면 정비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량 안전점검과 보수공사, 낙석방지 보수공사 등을 시행했다.

대불기업지원단 관계자는 "대불기업지원단은 산단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래된 산단이나만큼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사랑상품권 월 구매해도

오늘부터 110만→70만원 축소

목포사랑상품권의 월 구매해도 및 보유한도가 1일부터 변경 운영된다.

구매한도는 월 11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되고, 그동안 무한대로 보유가 가능했던 보유한도도 앞으로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또 기존 지류 30만원, 모바일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류와 모바일을 합쳐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의 경우 50만원까지 충전 가능하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보호 확대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은 매출액 조사 등의 검토를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8% 할인 구매 혜택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른 것이다.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하고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상품권 이용률을 높여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박우량 신안군수 등 관계자들이 이클레이 가입 인증서를 전달 받은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가입

131개 국가 지방정부와 교류

신안군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에 가입했다.

신안군은 최근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손봉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가입 인증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클레이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ECLAC)의 특별자문 기관이자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로 전 세계 지방정부들이 기후에너지·녹색구매·자원순환·생물 다양성·생태교통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31개국 국가 2600여 지방정부가 함께 하고 있으며, 국내는 신안군의 가입으로 56개 지자체가 가입돼 회원국 활발한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성 위기의 시대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1004섬 신안군이 국제무대에서 함께 협력하며 공공의 책무를 담당해 나갈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은 이클레이의 전세계 협력망을 활용 지속가능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로서 책임감 있는 실천을 강화할 것이며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한빛원전, 9년 연속 '영광쌀 TV홈쇼핑' 지원

지난해 홈쇼핑·온라인 매출 76억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가 9년 연속 영광쌀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섰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최근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영광쌀 TV홈쇼핑 방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영광쌀 TV홈쇼핑' 지원은 영광쌀 브랜드인 '사계절이 사는 집'을 방송에 홍보해 농가 소득을 올리고 비대면 판로를 개척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

한빛본부는 지난 2015년부터 방송료와 온라인 물 배송비 지원을 통해 영광쌀의 가격 경쟁력 제고에 힘쓰면서 지역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홈쇼핑 매출액 44억원에 이어 온라인 판매까지 더하면 총 매출 76억원을 달성했다.

한빛본부는 올해도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영광쌀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최현규 한빛원자력본부장은 "사업 지원을 통해



영광쌀 브랜드를 홍보하고 농민들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빛본부는 영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선중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는 "영광쌀 매출 증대를 위해 지원해 준 한빛본부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영광의 고품질 쌀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이종수 기자 jylee@kwangju.co.kr

진도군, 지방세정 우수상...상금 5400만원

진도군이 전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이번 평가는 지방세 징수와 체납액 징수실적, 지방세수 확충실적, 세정운영 등 32개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진도군은 최근 3년동안 최위 성적에 머물렀으나 민선 8기에 들어 다양한 노력 끝에 지방세수 증대 등 전 분야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시상금 5400만원을 확보했다.

진도군은 남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맞춤형 책임 징수제 운영, 체납된 재산 일체 조사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세정업무에 활용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 지방세 신고, 상담, 납부 등의 원스톱 처리로 한층 더 신속하고 편리한 세정서비스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철한 세무 행정을 펼쳤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진도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우수상을 수상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신규 세원 발굴 등 세입 확충은 물론 납세자 납부 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해남군, 두륜산 도립공원 녹차밭 무료 개방

5월 한달간 체험·뒹임체험 가능

해남군이 두륜산 도립공원의 녹차밭을 1일부터 무료 개방한다.

해남 두륜산과 천년고찰 대흥사는 조선차(茶)의 중흥기를 이끈 초의정사의 차문과 전통이 살아 있는 녹차의 성지이다.

해남군은 도립공원내 약 2만 8000㎡ 면적에 14만그루의 녹차밭을 조성해 가꾸어 오고 있다.

녹차체험은 5월 한달간 녹차 잎 따기와 뒤임 프로그램 운영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녹차밭 탐방과 체험은 무료이다. 다만 차를 뒤여 녹차밭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체험객은 체험료 5000원을 내면 뒤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뒤임체험은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사전예약을



두륜산 녹차 체험장.

해야 하며, 1일 가능 인원이 10명 이내이다. 잎녹 채취를 위한 바구니를 제공받아 잎녹을 채취 후 도립공원관리사무소 2층에 마련된 녹차 체험장에서 녹차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